

워싱턴 벚꽃 구경 여행 후기

지난 주말에 친구와 같이 워싱턴에 벚꽃 구경을 갔다 왔다.

미국 기차 이용 경험

우리들은 다 차가 없어 기차를 이용하여 출발했다. 미국의 기차들은 주로 앰트랙(Amtrak)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. 내가 탔던 열차는 정시에 운영되었는데 친구는 많이 지연되었다. 미국의 기차는 약간 느린 편이고 평균 속도는 한 60mph 정도 나왔다. 매우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장도 자주 나는 것 같다. 내가 갔을 때 냉방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너무 불편하더라. 가장 나쁜 건 바로 돌아왔을 때 볼티모어에서 워싱턴까지의 구간에 전선이 떨어져서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야 하는 모든 열차가 다 대폭 지연되었으며 심지어 여러 열차도 취소까지 되었다. 비행기 대폭 지연과 달리 기차 지연은 아무 보상이 없고 무료 변경이나 취소만 준다. 원래 내 열차는 오후 7시 반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7시 반에 막 출발했다. 하지만 차가 없으면 기차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.

워싱턴의 교통

워싱턴의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이다. 지하철과 버스는 대부분 지역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다. 지하철을 이용하여 대부분 주요 관광 구역에 도착할 수 있고 나머지도 버스로 도착할 수 있다. 버스 요금은 2.25달러이며 지하철은 기본 요금이 2.25달러이고 이용 거리에 따라 다르다. 그런데 주말과 평일 밤에는 2.25에서 2.5달러의 요금이 나온다. 그리고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다. 벚꽃 시즌에는 관광객이 매우 많으니 길이 복잡하여 운전하면 오히려 느릴 것 같고 주차도 쉽지 않다.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.

숙소

워싱턴은 대체로 안전한 편이지만 동쪽은 서쪽보다 실제로 더 위험하니 동쪽에서 숙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. 버지니아에서 숙박하는 것을 추천한다. 안전성은 물론 가격도 더 저렴하다. 지하철역 근처에서 숙박하고 지하철을 타면 워싱턴에 빠르게 갈 수 있다. 우리는 로슬린(Rosslyn)역 근처 호텔에서 묵었다. 주변에 타깃과 세이프웨이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었다. 그리고 지하철로 20분쯤 워싱턴 중심에 도착할 수 있으니 확실히 편리하더라.

벚꽃 구경

워싱턴 벚꽃 구경 장소는 주로 워싱턴 기념탑과 타이든 베이스 근처다. 벚꽃이 만개하는 동안 관광객들이 매우 많아서 지하철도 붐비는 상태였다. 아침에 바깥에 나왔을 때는 날

씨가 많이 흐렸지만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땀 확 맑아져서 다행이었다. 우리는 먼저 워싱턴 기념탑에 가 봤다. 화장실에 줄이 기니까 출발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권한다. 워싱턴 기념탑에 올라갈 수 있지만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. 방문 30일 전과 하루 전에 표가 배포되는 한편 당일에도 적은 수의 표가 있지만 일찍 현장에서 받아야 한다. 기념탑 위에서 워싱턴 핵심 구역을 구경할 수 있고 사진도 잘 나오니 정말 가볼 만하다. 사람들에게 따라 우리는 다음에 타یدن 베이슨에 갔다.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호숫가의 벚꽃이 따라 흔들려 정말 편안하고 즐겁더라. 또한 타یدن 베이슨 호수 위에서 배도 탈 수 있는데 타려는 사람들이 많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시간이 여유로워야 한다.